

정치관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학생회(IVF)의 총무 및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현 정부가 적폐 청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 노력이 정치 개혁의 일환이냐 아니면 가장된 정치 보복에 불과한 것이냐 하는 해석에 있어서이다. 그리스도인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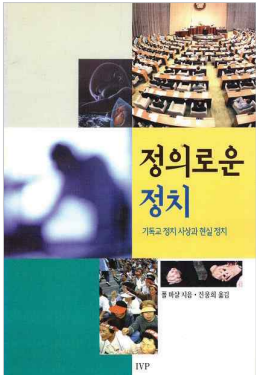
- (i)적폐 청산: 옳다
- (ii)정치 개혁: 옳다
- (iii)정치 보복: 그르다

다만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조치가 개혁의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보복과 연관이 되는지는, 원칙에 비추어서 알 수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 별 조사로 판명이 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 <책갈피>에서는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이나 탐색¹[이것은 너무 범위가 좁은 탐구 작업이고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을 목표로 하기보다 좀더 일반적인 주제[정치에 대한 전망과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입문서**이다.

1. 책의 형태가 아니기도 하고 또 14년 전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라 별도로 예시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분석이나 탐색의 좋은 예로서, 백종국, “한국 내 보혁 갈등의 성격과 해소 방안에 대하여 — 참여 정부의 등장을 중심으로 —,” 『갈등, 그 화해의 길』 제 20회 기독교문화회 자료집 (2003. 11. 8.), pp. 20-31을 참조하라.



폴 마셜 지음, 진웅희 옮김, 「정의로운 정치: 기독교 정치 사상과 현실 정치」(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폴 마셜(Paul Marshall)은 “종교의 자유”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정치학자로서 과거 기독교 학문 연구소(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ICS) 및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를 포함한 여러 교육 기관과 연구소에서 가르치고 연구했다. 2017년부터는 베일러 대학교의 종교학 연구소에서 석좌 교수로 일하고 있다.

상기 책자는 원 제목이 *Just Politics: A Christian Framework for Getting Behind the Issues* (1997년 ICS 간행)로 되어 있어,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는 일에만 착념하기보다 정치행동의 목적과 이유를 담을 수 있는 기독교적 관점의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저자 스스로가 이 책의 제목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고 말한다. 첫째, 정치의 중심에는 정의가 있다는 것이요, 둘째, 정치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서론: 구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 제2장 창조와 인간의 소명
- 제3장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과 우리의 책임
- 제4장 민주주의에 대한 성경적 관점

- 제5장 현대 세계에 대한 이해
- 제6장 낙태와 도덕적 문제들
- 제7장 교회, 국가, 종교의 자유
- 제8장 경제와 복지 국가
- 제9장 국제 정치와 인권
- 제10장 기독교적 활동을 위한 지침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한국인의 저술이지만 각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서구의 정치 철학자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박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서울: 한길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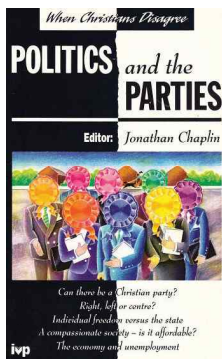
저자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가치와 윤리센터> 소장과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정치이론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 철학 전공자가 아니면 익숙하지 않을 다섯 명의 학자들 — 필립 페티(Philip Pettit), 데이빗 밀러(David Miller), 샬탈 무페(Chantal Mouffe), 에이미 Gutmann(Amy Gutmann), 마사 너스바움(Martha Nussbaum) — 과의 질의 응답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한 명의 인물당 학자의 배경과 이론 소개, 질의 응답, 한국 상황への 적용 등 세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

필자가 이 책자를 언급하는 것은 특히 세 번째 학자 무페에 대한 제목 때문이다.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쟁투적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는 표제가 시사하듯, 이 글이 현금 우리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 어떤 통찰력이나 힌트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예상은 부분적으로 들어맞은 것 같다. 첫째, 무폐의 급진적 민주주의 이론은 한국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그녀가 정치 사회적 갈등을 이론적·전략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녀의 설명이 오늘날 우리의 처지에 대해 높은 정도의 적실성을 보유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필자는 그리스도인과 정치 활동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함께 등장시키는 책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할 세 권 모두 “발표-응수” 식의 틀을 갖추고 있는데, 한 명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면 나머지 입장의 대표자들이 그 발표 내용에 반응을 하는 식이다. **첫째 권은 영국의 실정에 대한 것이다.**



Jonathan Chaplin, ed.,
Politics and the Parties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92)

이 책자는 영국 IVP가 기획한 “그리스도인끼리 의견의 차이가 생길 때”(When Christians Disagree) 시리즈 [이 시리즈의 다른 책들은 전쟁

과 평화주의, 여성의 역할, 창조-진화론, 기적과 치유, 교회 연합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의 한 권으로 선을 보였다. 우선 책자의 초두에는 19가지의 테제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테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째 범주 (1-6): 정치 및 정부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테제

테제 1: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인간 사회에는 정치적 질서가 있어야 한다 (삿 2:16; 잠 8:15-16; 요 19:11; 행 19:35-40; 롬 12:18-13:7; 딤후 2:1-2; 벧전 2:13:14).

테제 2: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정부 형태만을 부여하신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성격이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성경적 힌트(신 17:14-20; 민 1:16; 26:9; 삼하 5:3 등)를 주셨다.

테제 3: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롭고 공정하고 화평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신 5:16-20; 겔 18:5-9; 롬 13:7-8; 벧전 1:14-16).

테제 4: 교회의 임무 가운데 한 가지는 성경적 교훈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성 있는 시민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테제 5: 기독교 정당의 주된 기능은 일관성 있는 일련의 정치적 확신을 옹호하고 실현하도록 힘쓰는 데 있다.

테제 6: 성경에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잡는 데 필요한 어떤 특정한 규정이나 훈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반적인 윤리적 가르침으로 보아 하나님의 항구적인 뜻으로 여겨지는 어떤 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범주 (7-12): 경제 생활 및 복지 제도의 마련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테제

(테제 6-11은 경제 이슈에 관한 내용이므로 생

략한다.)

테제 12: 정치 지도자들의 권세는 매우 신중하게 그들 고유의 권리와 의무에 국한되어야 한다 (삼상 10:25; 신 17:14-20; 롬 13:3-4).

셋째 범주 (13-19): 둘째 범주의 내용이 현재 의 상황에 주는 의미에 대한 테제

(정치 상황과 직접 연관이 되지 않으므로 내용은 소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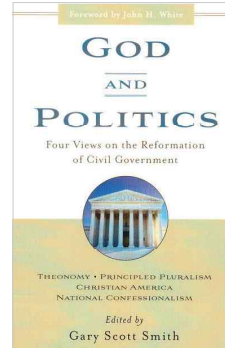
위에서 소개한 일곱 가지 테제(1-6, 12)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하지만, 나머지 테제(7-11, 13-19)와 관련해서는 여러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자는 세 가지 하부 주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 준다.

- 제1부 기독교적 입장/견지라는 것이 가능한가?
- 제2부 기독교와 정당 결성
- 제3부 외부인의 시각: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독립적 평가

이 책의 내용이 영국의 상황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지리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두 권은 미국의 상황에서 쓰인 것이다. 첫째 권은 개혁과 신학 전통 내에 존재하는 바 정 치에 관한 네 가지 입장이 무엇인지 예시한다.

1987년 일단의 개혁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공민(公民) 정부 체제(civil government)에 미치는 의미를 논하고자 하여 그 해 6월 2-3일에 펜실바니아 주의 제네바 대학에서 “공민적 정부에 대한 성경의 역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책은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개정한



Gary Scott Smith, ed., *God and Politics: Four Views on the Reformation of Civil Government*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9)

것이다.

각 입장의 명칭과 주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률론적 입장(Theonomic position): 구약의 도덕적·시민적 율법 조항은 신약에서 폐기가 명시된 것을 빼놓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가의 경영에 적용된다고 본다. 이 입장은 기독교 재건주의(Christian reconstructionism)라고도 불린다.

2. 원칙론적 복수주의 입장(principled pluralism):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실체가 각각 독자적 주권을 가지 되 다른 실체와의 조화 가운데 함께 작동하도록 정 하셨다고 주장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sphere sovereignty) 사상이 이 입장을 반영한다.

3. 크리스천 미국 입장(Christian American): 이 입장은 상기한 두 가지보다 정확히 정의를 내 리기가 힘들다. 단지 미국은 기독교적 전통/유산 (Christian heritage)을 물려받은 나라이므로 법 적·정치적 체제 또한 유대-기독교적 정신으로 쇄 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국가적 고백 정책 입장(national confession alism): 오늘날의 모든 국가들 — 따라서 미국도 마 찬가지이다 — 은 그들의 공적 문서에 예수 그리스 도에 대한 충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정의를 진작시키는 정치 체제를 고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마 28:18에 언급된 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께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2번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또 이것이 한국의 실정에도 부합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미국의 개혁과 전통 내에서는 상기한 입장들이 함께 주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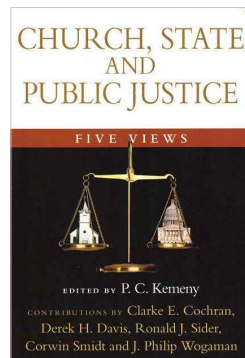
미국의 상황에서 논의가 된 둘째 책은 **기독교 전반의 신학 전통과 맞물려 형성된 다섯 가지 입장**을 선보인다.

이 책자에서는 각 신학 전통을 대표하는 이들이 교회와 국가 (및 공적 정의)의 관계를 논한다. 그들이 대표하는 신학 전통과 그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의 삶: 가톨릭적 전망 (Life on the Border: A Catholic Perspective):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결코 획일적 단일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의해 더욱 복잡히 꼬여 있다. 주창자는 이 글에서 주류 가톨릭의 입장을 그것이 나타내는 긴장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2. 고전적 분리의 전망 (The Classical Separation Perspective): 이 입장은 종교적으로 다원화한 사회에서 타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들의 종교적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서 침례교회의 전통과 잘 맞는다. 그러나 이 입장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종교와 정치가 전폭적으로 분리되어야 함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3. 원칙론적 복수주의의 전망 (The Principled Pluralist Perspective): 이 견해는 위에서 나왔듯 개혁파적 신앙 전통에 뿌리박은 입장이다. 원칙론적 복수주의는 국가가 삶의 영역 가운데 합당한 권한



P. C. Kemeny, ed., *Church, State and Public Justice: Five Views*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2007)

을 가진 사회 구조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회 구조들 — 가정, 교회, 학교 등 — 역시 고유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4. 아나뱃티스트의 전망 (The Anabaptist Perspective): 이 입장은 16세기 아나뱃티스트의 전통을 좇아 평화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정치적 참여가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평화주의는 비폭력적 형태의 권세나 정의 수립의 메커니즘과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사회적 정의의 전망 (The Social Justice Perspective): 이 입장은 개신교 내 주류 교단들 — 세계교회협의회(WCC)나 전국교회협의회(NCC)에 속한 교단들 — 이 취하는 바로서, 교회는 공공 정책 가운데 또 공공 정책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창자는 감리교도이지만 그의 설명은 개신교도들 대부분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집자는 지면의 제약 때문에 루터파의 전망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폴 마샬의 말을 반복하거나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정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형성이다. 이번에 소개된 책자의 대부분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